

	평균	357	0.85	2.9	13.2	0.25	6.0
홍안	'14	358	0.82	11.0	13.5	0.23	5.5
	'15	382	0.82	12.0	14.4	0.23	5.3
	'16	446	0.94	10.8	11.8	0.20	5.7
	평균	395	0.86	11.3	13.2	0.22	5.5
피크닉	'14	255	0.88	17.3	15.0	0.45	7.5
	'15	252	0.89	21.0	15.9	0.47	6.6
	'16	227	0.88	4.8	17.1	0.50	6.6
	평균	245	0.88	14.4	16.0	0.47	6.9
황옥	'14	225	0.91	-10.9	16.6	0.68	6.4
	'15	228	0.89	-10.7	15.6	0.70	6.7
	'16	264	0.96	-10.5	16.7	0.47	6.5
	평균	239	0.92	-10.7	16.3	0.62	6.5
여홍	'14	323	0.84	15.3	14.3	0.36	5.5
	'15	389	0.83	9.0	14.7	0.35	5.0
	평균	356	0.84	12.2	14.5	0.36	5.3
홍로 (대조)	'14	309	0.86	9.0	17.0	0.18	4.6
	'15	359	0.84	11.1	13.3	0.28	6.2
	'16	291	0.97	4.6	14.8	0.24	6.2
	평균	320	0.89	8.2	15.0	0.23	5.7

중생종 중 ‘홍소’는 과중 427g으로 극대과였으며, ‘홍안’도 395g으로 대과였다. 그 외에도 ‘그린볼’, ‘홍금’, ‘여홍’은 340g 이상으로 대과였다. ‘아리수’는 322g의 과중으로 육성당시의 280g보다 다소 컸으며 같은 시기에 수확되는 ‘홍로’와 유사하였다. 중과형 품종으로 개발되어 발표된 ‘황옥’과 ‘피크닉’은 각각 239g과 245g으로 중과형 크기였다. 녹황색 품종인 ‘그린볼’의 적색도는 13.8이었고 황색 품종인 ‘황옥’의 적색도는 -10.7이었다. 적색도가 가장 높은 품종은 ‘홍소’ 품종을 17.9였으며, 유망품종인 ‘아리수’는 12.1로 대조 품종인 ‘홍로’의 8.2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당도는 중과형 품종인 ‘황옥’과 ‘피크닉’이 16.0°Bx 이상으로 높았고 ‘아리수’가 15.5°Bx였다. 특히, 대조품종인 ‘홍로’는 당도 15.0°Bx인 반면 산도가 0.23%로 낮으나 ‘아리수’는 산도도 0.44% 높아 당산비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6. 신육성 품종 중 만생종의 숙기별 과실 특성('15)

주요품종	과 중 (g)	과형지수 (L/D)	적색도 (Hunter a ₃₅)	당 도 (°Bx)	산 도 (%)	경 도 (kg/Ø11mm)
단홍	470	0.86	21.0	13.0	0.31	5.3
후지(대조)	321	0.86	12.8	15.0	0.46	5.8

‘후지’ 단과지 착색면이 품종인 ‘단홍’은 일반 ‘후지’에 비해 470g으로 극대과로 수확되어 당도와 산도가 일반 ‘후지’에 비해서 낮았다.